

지사안내

천안본부 041)579-8803
아산본부 041)548-9339

아산 '안심식당' 133곳 추가 지정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133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문화 개선 위해 ▲털어먹기 도구 등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시는 총 473개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운영하게 됐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안심식당 스티커와 함께 위생용품이 지급되며, 온라인 포털에 소개돼 해당 업소의 위생에 대한 신뢰감과 선호도 상승에 높은 효과가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천안 입장면 12개 버스노선 내달부터 개편

천안시는 입장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입장면 지선버스 12개 노선을 8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입장면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12개 노선 5대에 대해 탑승률이 낮은 노선과 중복으로 운행되는 노선 일부를 통합 및 조정 등 개편을 마쳤다.

주요 개편내용은 입장면 지선버스가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시장, 병원, 은행 등 주요 생활 중심지를 경유하도록 개선해 주민들의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향상한 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장면 노선 개편을 통해 입장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입장면 중심생활권 경유 민원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반영한 노선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황인제 기자

충남경제혁신센터 아람드리 네트워킹데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희준)가 아람드리 입점기업과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2022 아람드리 네트워킹데이'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람드리 입점기업과 갤러리아 각 지점 아람드리 담당 및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고, 아람드리 운영 결산과 추석 선물 세트 운영계획 등 활발한 논의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준 센터장은 "아람드리를 가치와 희소성 있고 모방과 대체가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천안 농축협 쌀소비 촉진 '1·2·3 운동'

천안시 12개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천안시 농·축협 통합운영협의회(회장 윤노순)는 범농협 쌀소비촉진 '1·2·3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2·3 운동'은 쌀 생산량 증가 및 소비량 감소로 인한 쌀값하락과 농협의 재고 과다 보유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범농협 임직원이 '한(1)달에 20kg쌀, 두(2)포씩, 총 삼(3)개월간' 구매하는 범농협 쌀 소비촉진 운동이다.

천안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14일부터 26일까지 천안 햅타령쌀 20kg 1400여포를 구매한 상태로 천안 농협 임직원 1인당 10포씩을 목표로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63.6%가 60세이상 고령자 노령인한 사고위험 우려속 2032년 면허반납엔 인력난 법인택시는 업무강도 높고 개인택시는 진입장벽 문제

평균연령 40.4세의 젊은의 도시 '천안시'가 택시운전사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택시운전사의 연령이 30대 16명, 40대 146명, 50대 720명, 60대 1286명, 70대 257명



충남도 안전체험관 모습.

충남안전체험관 이용객 200% ↑

코로나 이후 방문객 다시 늘어 올 상반기에만 2만 1124명 찾아

천안시에 위치한 충남도 안전체험관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충남도 안전체험관은 2016년 각종 재해의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중심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지상 4층, 연면적 5795㎡ 규모로 신축했다.

주요 체험시설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체험, 응급처치와 소방시설 실습 등 소방공무원이 직접 안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관은 2018년 연간 14만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를 한몸에 받았으며, 2018년 기준 만족도 역시 96.7%로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113일간 임시 휴관을 하는 등 체험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2018년은 14만448명이 방문했지만, 2019년 11만8854명, 2020년 1만281명으로 급감하면서 2020년에는 최고 방문객 대비 92.7% 나 줄었다.

다행히 2021년 2만3959명, 2022년 6월 30일 기준 2만1124명이 방문해 지난해 전반기 방문객인 1만233명보다 206%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며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정재용 관장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80대 3명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절반 이상인 63.6%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밝혀졌다.

이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체적인 현상으로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진이 경찰청에 제출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노령 등으로 인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일반 운전자보다 9.7배, 야간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8.0배 높다고 조사했다.

연구 결과, 모든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

전면허를 제한하는 것보다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확대하고, 신체검사를 65세 이상 및 2종 운전면허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2024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택시운전사 등 고령 운전자가 신체검사 및 운전능력이 저하될 경우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 개정 후 고령자 운전면허자 진반납 시기인 2032년에는 취득과 갱신에 일부 제한이 있어 택시운전사 수 역시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택시 운전자 A씨는 "근무환경이나 급여가 맞지 않아서 젊은 층의 유입이 끊긴 것 같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식이 반복돼 몸이 견디기 힘들고, 개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이나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받는 시민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며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택시운영이 힘들다 보니 젊은 층의 유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불법 쓰레기 배출, 스톱!

아산시 배출장소 53곳에 고보조명 바닥·벽에 이미지... 불법투기 근절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쓰레기 배출장소 53개소에 고보조명을 추가 설치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고보조명은 그림이 새겨진 필름을 조명에 넣어 바닥이나 벽에 비추는 방식의 조명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이미지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삼습 불법투기 쓰레기 배출장소 60개소에 고보조명을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53개소 추가 설치를 완료한 시는 총 113



아산시가 고보조명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이미지를 연출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노력하고 있다.

개소의 쓰레기 배출장소에 설치된 고보조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는 올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5대와 쓰레기 거점 수거 시설인 클린

하우스 60개소 추가 설치에 나서는 등 도시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보조명을 추가 설치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아산 열린간담회 진행 모습.

아산시 열린간담회, 시민들에 인기

탕정면·온양5동에서 열려... 박경귀 시장, 현장서 민원 수렴

아산시 열린간담회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 탕정면 선문대학교, 온양5동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박경귀 시장은 탕정면민들과의 대화에서 ▲탕정2지구 도시개발(위터웨이 명품신도시 조성) ▲곡교전 물빛도시(봉강교~온양전합류부) 수변공원조성 ▲지중해마

를 문화센터 설립,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선문대 대학가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온양5동 비전으로는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용화 숲속 힐링 체육공원 조성 ▲중부권 거점 국립경향병원 유치 ▲삼습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 ▲시민로(용화동 사거리~623도로) 확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의 숨겨진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살과 숨이곳에서
하루하루 영양나들이

빛

밤하늘의 별처럼
영양군을 빛나게 하는 별들

맛

자연의 선물
영양군의 맛

심

자연과 벗하는
영양군의 마음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매일 꼭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백계곡, 측백수림, 외새바늘길
- 영양의 역사, 음식(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해문화공원, 반딧불이전원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양풍력발전단지, 출렁신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목야생화전시관